

## 영령들이여 그날이 오면

김성수

유월이 오는 날이면 건성건성 이승을 떠나  
영면에 들어간 호국 영령들과 전우들에게 가슴이 그리워  
산 넘어 산 중턱, 오와 열을 맞춰있는  
현충원의 앞마당에 화강암 돌비석 앞에 서럽게 운다.  
아~ 유월이면 찾아온 아들의 앞에 왔건만  
단 한 번도 따뜻한 얼굴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 
이렇게 힘없이 서성이고 있다  
이젠 나이가 많아 다시는 찾지 못하리라 생각이 들어  
지난해 마지막 작별의 잔을 따르며  
백번도 더 가슴으로 묻어두기를 다짐했건만  
막상 오늘이 현충일이라니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찾아와  
돌비석을 닦아주며 결코 울지 않고 웃음으로 아들을  
맞으리라, 다짐하며 아비가 주는 마지막 비석 앞에  
아들이 좋아하는 막걸리 한 사발 따라 주리라, 아들이!  
옹알이 목소리로 불러보는 내 목소리  
들리걸랑, 피시기 웃어다오  
달달 볶아대는 유월의 태양을 삭혀 낼 때쯤  
밥상 포로 덮어버린 하늘도 아는지 모르는지  
미세먼지가 눈을 가리고 어느새 빗물이  
눈물로 변하여 떠나는 마지막 귀향길  
뒤돌아볼 여유도 주지 않고  
들어서는 고향집  
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이리도 아린 눈물  
서러운지, 깊어지는 이 밤  
너를 가슴으로 늘 품고 있다  
이 아비가 지금도.